



3·1절 전국마라톤 대회를 빛내주시기 위해 소중한 시간을 내주신 내외 귀빈과 마라톤 가족 여러분!

세계적인 경제위기로 온 나라가 움츠

“힘찬 도약 위한 계기로”

유제철 광주일보 사장

늘들고 있는 와중에도 여러분의 활기찬 모습을 별개로 반갑습니다.

희망의 싹이 돋는 새 봄에 떨치고 일어나서 건강을 행하고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겠다는 마라톤 동호인들의 굳센 의지를 보는 것 같아 더욱 고맙습니다.

3·1운동 당시 우리 선현들이 일제의 압박에 항거해 대한민국 건국의 주춧돌을

놓았듯이 이번 3·1절 전국마라톤 대회는 세계 일류국가를 향해 도전하는 힘찬 레이스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마라톤은 불굴의 정신력과 의지를 바탕으로 인간의 한계에 도전하는 스포츠입니다. 뜨거운 도전 의지를 안고 이번 대회에 참가하신 마라토너 여러분들에게 무한한 경의를 표합니다.

제44회 광주일보 3·1절 전국 마라톤대회는 마라톤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 마련된 큰 잔치입니다.

이번 대회는 전국 각지에서 운집한 마라톤 동호인들이 희망이 움트는 광주의 거리와 폐적인 영산강변을 달리며 새 봄의 향기를 만끽할 수 있는 축제가 될 것입니다.

이번 대회의 성공을 위해 큰 도움을 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대회를 공동 개최해 주신 박광태 광주광역시장님과 박준영 전남도지사님, 그리고 광주·전남 육상경기연맹 관계자와 광주·전남지방경찰청, 광주 서부·남부경찰서, 나주경찰서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마라톤 동호인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기극복, 역량 모으자”

박광태 광주시장

‘3·1절 기념 제44회 전국마라톤대회’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전국 각지에서 문화수도 광주를 찾 아주신 마라톤 애호가 여러분께 뜨거운 환영과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매년 본 대회를 개최하며 시민들의 건강증진에 크게 기여해 오신 광주일보 임직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사는 조국 광복에 대한 강한 의지를 온 세계에 알렸던 3·1절을 기리고, 최고의 건강을 뽐는 대회입니다.

마라토너 여러분 모두 국가와 민족의 밝은 미래를 염원하며, 건강도 다지는 보람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계금융 위기가 실물경제로까지 파급되면서,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일반 서민들의 생활은 더욱 어렵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예산을 조기집행하면서 비상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지역경제 살리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IMF를 빠른 기간에 이겨낸 저력이 있습니다. 꿈과 희망을 갖고 노력한다면, 지금의 도전은 새로운 기회가 되리라 믿습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마라톤 대회 열기가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역량 결집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지역경제에 혜력이 넘치고, 시민 여러분의 살림살이가 한결 나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대회가 마라톤 애호가들의 축제의 장으로 성료되기를 바리면서, 광주일보의 무궁한 발전과 여러분의 건승을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정·화합 레이스 기대”

박준영 전남지사

오늘 광주일보가 마련한 전국마라톤 대회가 성대하게 열리게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전국에서 모이신 마라토너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90년전 오늘 전국은 만세소리가 요란했습니다. 일본의 압제에 항거하여 죽음을 불사하고 독립을 외쳤습니다. 선조들의 그런 희생과 현신이 있어서 오늘날 우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후손에게 무엇을 남겨야 하겠습니까? 중요로운 경제 기반과 자유스러운 삶의 터전을 그들에게 주어야 합니다.

그런 나라와 그런 지역을 만들기 위해 지금 우리 광주와 전남이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수도를 만들고, 여수엑스포도 준비하고, 새로운 해양문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3·1운동의 희생이 오늘 우리에게 자유를 만끽하며 힘차게 달릴 터전을 주었듯이 우리 노력 또한 후손에게 행복을



을 누릴 터전을 유산으로 주어야 하겠습니다.

그런 열원을 갖고 여러분 모두 힘차게 달리십시오. 오늘 이 대회가 참가자 여러분의 우정과 화합을 다지는 가운데 우리나라 마라톤 발전을 위한 뜻 깊은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그리고 해마다 뜻깊은 마라톤 행사를 마련하시는 광주일보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광주와 전남은 여러분과 함께 달릴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가족 건강 쟁기는 기회”

장갑수 광주지방보훈청장

3·1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런 뜻 깊은 대회를 개최하여 주시는 광주일보사와 광주·전남육상연맹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아흔번째 3·1절을 맞이하여 달리기를 좋아하는 여러분을 모시고 월드컵 4강의 신화를 이룬 이곳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3·1절 전국 마라톤대회가 열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90년전 오늘, 우리 선열들은 조국의 독립과 자존을 염원하며 분연히 일어섰습니다. 2000만 동포가 하나 되어 외친 대한독립만세 소리는 전국 방방곡곡으로 메아리쳤으며 우리 민족의 자주의지와 기상을 세계만방에 전했습니다.

그 날의 숭고한 자주독립정신은 광주 학생독립운동으로 이어졌고 80년대 5·18민주화운동에 이르기까지 오늘의 우리 광주를 이루어냈습니다. 이러한 우리 선열들의 독립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광주일보사에서는 1954년 제1회 대회를 개최합니다.



마라톤 동호인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마라톤 대회에 기꺼이 참여해주신 참가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매년

최한 이후 오늘로 44회째를 맞았으며 시민들의 마음속에 3·1독립정신을 심어 주었습니다.

또한 본 대회를 주관하는 광주일보사는 명실공히 우리 지역의 대표적 언론사로서 언론문화 창달에도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본 대회가 3·1절의 의미를 마음 속 깊이 음미하는 한편 건강을 증진하고 가족과 직장 구성원간 우의를 다지는 화합의 장으로 자리 매김하기를 기원합니다.

생명이 움트는 봄, 3월의 첫날이자 3·1절인 오늘, 본 대회에 참가하신 여러분 모두 희망을 품고 달려 완주의 기쁨을 누리시길 바라며,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기쁨과 행복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